

한국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120명 집단해고에 저항하는 투쟁이 거세집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가 노조설립을 시작으로 한 원청 한국GM의 보복성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GM물류 투쟁의 배경을 보면 글로벌 GM이 한국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이런 짓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천국이자 노조탄압 백화점

2025년 7월 노조(지회) 설립 배경은 저임금, 강제잔업, 연차휴가 제한 등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보장되었지만, 20년을 일해도 근속연수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정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인상되자, 아예 상여금을 없애고 고정수당을 만듭니다.

지회 설립후 하청업체(우진물류)는 단체교섭에서 원청 한국GM 허락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을 준비하자, 한국GM LR(노사관계) 총괄상무는 지회와 접촉을 통해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진행합니다. 한국GM은 하청업체에 조합원 파업으로 인한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한국GM이 물류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GM물류센터는 불법파견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법원은 창원센터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습니다. '싼 값'으로 하청노동자를 쓰면서 한국GM의 물류부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립니다. 2023~24년 한국GM의 평균 마진율은 9%대인데, 물류부문은 50%입니다. GM물류센터는 1년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습니다.

지회 설립 후 조합원들은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노조법 개정을 배경으로 원청 한국GM을 상대로 단체교섭도 준비합니다.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결렬하고 합법적 쟁의권을 얻고 파업도 준비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끊길 판이니 한국GM은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섭니다. 한국GM은 2019년부터 인천, 창원, 제주센터를 순차적으로 폐쇄해 지금은 세종이 유일한 물류센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GM의 사태수습 방법이란 너무 추악했습니다.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만 발탁하여 정규직(부평, 창원 생산직)으로 채용을 발표합니다. 조합원 갈라치기를 통해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자회사 채용 꼼수와 닮아있습니다. 동시에 희망퇴직 바이아웃(buy-out) 위로금을 제시하며 현장을 흔들었습니다.

한국GM은 그동안 매년 진행하던 업체 재계약을 지연시키면서 고용불안을 통해 현장을 흔들니다. 동시에 불법파견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업체계약시 노무도급(인도급)에서 물량도급(인원수와 상관없이 물량에 따라 도급비를 책정)으로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한국GM은 노조-신규업체(정수유통)-노동부와 4자 협의에서 합의한 고용승계원칙도 뒤집습니다.

급기야 한국GM은 정수유통을 통해 물량반출 시도를 하다가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합니다. 노동부도 물량반출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자 빈 파레트로 위장해서 몰래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GM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망치는 GM, 정부가 나서라

백화점식 탄압을 온 몸으로 뚫으며 연말연초를 견딘 조합원들은 지금도 물량반출을 몸으로 저지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GM물류 투쟁은 다른 사업장의 불법파견 투쟁,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원청교섭 투쟁, 폐업-매각-외주화 저지 투쟁과 고용보장 투쟁, 외국투기자본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GM물류 투쟁을 엄호하고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02년 미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래, 군산공장 폐쇄(2018), 3개 물류센터 폐쇄(2019~21), 부평 2공장 폐쇄(2022)를 자행했습니다. GM의 이런 조치는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을 깨뜨리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산업 공급망과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부품사가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빠지고, 지역사회와 경제도 파탄이 났습니다.

급기야 한국GM은 올해 2월 15일부로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은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의 노사합의도 어겼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끊기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공교롭게도 직영정비센터 폐쇄와 세종물류센터 폐쇄는 비슷한 시기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사이 GM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철수 협박은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17.02%)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국책은행이며, 주주감사권, 비토권, 이사선임권을 행사하며 한국GM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2018년 한국GM 경영위기 당시 쏟아부은 돈이 8천억원에 달합니다. 국가가 나서 산업생태계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의 행태를 바로잡고 한국GM의 사회적 역할과 고용안정 책임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번주 목요일(1월 15일 14시)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GM세종물류센터 (세종시 연기면)에서 열립니다. 충남지부 확대간부 동지들은 결의대회 참가에 총력집중바랍니다. 동시에 아래 투쟁기금(15,800원) 모금에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연대의 손길 바랍니다.

투쟁승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15,800원 연대

GM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선 120명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1월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투쟁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15,800원의 연대로 해고노동자들의
튼튼한 뒷배가 되어주세요!



연대기금 보내기

15,800원은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 158만원을 의미합니다



기간 **1.9(금)~1.14(수)**

계좌 **3333-34-4491038 카카오뱅크 (최현욱)**

GM세종물류 투쟁승리 공동대책위